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"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,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"
2012년 3월 23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오승철 동남아협력과장, 윤영범 사무관(2110-4627)		

한·베트남 에너지자원분과위원회 개최

- 광물자원, 전력개발, 석유가스 협력 등 양국 관심사항 논의
- 진행중인 사업 지원 및 신규사업 발굴 등 협력 강화키로

□ 지식경제부(수석대표 : 김창규 전략시장협력국장)와 베트남 산업무역부(수석대표 : Cao Quoc Hung 에너지총국 부총국장)는 '12년 3월 23일(금) 서울 신라호텔에서 "한-베트남 에너지자원분과위원회"를 개최함

○ 한-베트남 에너지자원분과위는 양국간 에너지·자원 협력 채널이었던 한-베트남 자원협력위원회가 한-베트남 공동위원회('11.5월 설치, 지경부장관-베트남 산업무역부장관) 산하로 편입되면서 설치됨

○ 편입 이후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 한국측은 김창규 전략시장협력관을 수석대표로 석유공사, 광해관리공단, 가스안전공사, 에경연, 지자연, 동양강철, 삼성물산 등 10개 기관 29명이,

○ 베트남측은 카오 쿠오 헝(Cao Quoc Hung) 산업무역부 에너지총국 부총국장을 수석대표로 PVN, EVN, ISEA, 비나코민 등 6개 기관 10여명이 참석

□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자국의 에너지·자원 현황과 전망, 에너지 정책 등을 소개하고, 광물자원, 전력산업, 석유·가스 협력 등의 세부의제에 대해 현안과 관심사항을 협의

○ 양국은 석탄광, 알루미늄 제련공장, 희토류 광상 탐사 등 현재 추진중인 베트남내 광물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점검하고,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음

* 남장백 석탄광개발: 한국 기관 및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 추진 중(가채광량 1억5백만톤)
* 알루미늄 제련공장 : '13년 착공, 15년 상업운전 목표

○ 남딘 화력발전소 건설 등 베트남 전원개발 사업 지원을 통해 전력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하였음

* 석탄화력발전소 : '13년말 착공, '18년도 1단계발전소 상업운전 목표

○ 또한, 양국 석유공사간 신규 유전 공동개발, 석유비축기지 운영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 등 석유·가스 부문 협력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음

* 생산광구(2): 15-1광구(원유 28억배럴), 11-2광구(원유 17백만배럴)
* 탐사광구(3): 15-1/05광구('07~'13), 122광구('07~'15), 123광구('08~'15)
* 지하 석유비축기지 운영 협력

○ 아울러, 베트남 가스안전체계구축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베트남내 가스안전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관련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함

□ 이번 에너지·자원 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는 26일 제3차 한-베트남 공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될 계획임

<참고>

한-베트남 에너지자원분과위 개최 개요

□ 개 요

○ 배경 및 목적

- 기존 양국간 자원협력 채널이었던 한-베 자원협력위가 한-베 원전 및 산업기술협력 공동위원회*(장관급)산하 분과위로 편입

* 한-베트남 원전건설 및 포괄적 산업·에너지·자원협력 MOU('11.5.5)에 따라 설치

** 기존 자원협력위는 한-베트남 에너지 및 광물자원협력 약정('01.2)에 따라 7차례 개최

- 동 회의를 통해 베트남과의 에너지·자원분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기업의 자원개발 투자진출 지원

○ 일자 및 장소 : '12.3.23(금) 10:00~13:00, 서울 신라호텔(라일락룸)

○ 대표단 구성

- 한 국 : 지식경제부(수석대표 : 김창규 전략시장협력국장), 석유공사, 광해관리공단, 지자연, 에경연, 동양강철 등 9개 기관 27명
- 베트남 : 산업무역부(수석대표 : Cao Quoc Hung 에너지총국 부총국장), PVN, EVN, ISEA, 비나코민 등 6개 기관 9명

□ 주요 논의 의제

○ 양국의 에너지·자원정책 소개

○ 석탄광개발, 알루미늄제련공장, 네안지구 희토류 광상개발

○ 남딘 석탄화력발전소

○ 베트남 가스안전체계구축 지원, 석유공사-PVN간 포괄적 협력